

비즈 프리즘 | 은행들 “바가지 대출 이자 돌려드립니다”

최대 25억원...부당산출 이자 전액 환급

경남·하나·씨티 7월 중 환급 진행
 대부분 소득입력 오류 등 단순 실수
 금감원, 대출금리 개선안 마련키로

| 은행 | 건수 | 금액 |
|----------|---------|----------|
| BNK 경남은행 | 1만2000건 | 25억원(추정) |
| KEB 하나은행 | 252건 | 1억5800만원 |
| citibank | 27건 | 1100만원 |

25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경남은행의 총 대출 중 무려 6%에 달한다. 경남은행측은 이에 대해 고객 연소득 입력 시 소득이 누락되거나 과소 입력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해명했다.

하나은행도 잘못 산출된 이자 1억 5800만원의 환급 계획을 발표했다. 2012~2018년 5월까지 취급한 대출 약 690만건 중 252건의 최고 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중

류별로는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대출 200건이다.

한국씨티은행도 부당하게 이자를 더 받은 27건의 대출에 대한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금액으로는 1100만원 규모다. 2013년 4월~올해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대출금리 부당 산출 사례는 금융감독원이 21일 9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출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대출금리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출할 때 대출자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며 금리를 높게 책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실이 아닌 고의 가능성

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3개 은행 모두 고의가 아닌 단순 업무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 대한 의구심은 깨끗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금융감독원이 9개 은행의 금리 산출체계를 단기간 점검했는데도 3개 은행에서 부당 사례가 적발된 만큼 은행권 전반에 금리조작이 퍼져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산출내역서 제공과 대출금리 모범규준도 개선을 추진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출금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한눈으로 보는 경제

26일

| | | | |
|---------------------|-----------|---|---------|
| 코스피지수 | 2350.92 | ↓ | -6.96 |
| 코스닥지수 | 831.40 | ↓ | -4.60 |
| 日 닛케이 지수 | 2만2342.00 | ↑ | +3.85 |
| 中 상하이 종합 | 2844.51 | ↓ | -14.83 |
|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 2.15 | ↑ | +0.01 |
| 환율 (원·달러) | 1114.80 | ↓ | -0.40 |
| 국내금값 (원/그램) | 4만5118.92 | ↓ | -518.85 |

문체부, 관광산업 체계적 육성 벤처보육센터·일자리센터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산업 지원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관광벤처보육센터와 관광일자리센터를 운영한다.

서울 중구 관광공사 서울센터에 자리 잡은 보육센터와 일자리센터는 혁신적 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기업 간 소통·교류의 장을 활성화하며, 관광 분야 취업준비생과 기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조성했다.

보육센터 입주 지원은 혁신적 관광사업 소재를 지닌 예비창업자 및 매년 여는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20개 기업을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3~5월에 걸친 공고와 심사를 통해 스마트워크공간(1~2인실) 12개, 4인실 6개, 6인실 17개, 10인실 6개 등 총 41개 기업을 선발했다.

4월에 문을 연 일자리센터에서는 관광 전문인력포털 관광인과 연계해 상시 1대1 취업상담 기능을 제공하고, 관광 분야 취업특강과 멘토링 등의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전용폰부터 특화폰까지...스마트폰 차별화 경쟁

‘갤럭시S9’ 항공마일리지로 가격 할인
 어린이·중장년 특화 기능 중저가폰도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기업들이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기 위한 제품 차별화에 나섰다. 다른 분야와 제휴를 맺고 전용폰을 선보이는가 하면, 특정 콘텐츠에 특화된 중저가 모델도 내놓았다.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 아시아나항공

은 ‘아시아나 갤럭시S9’을 7월10일부터 10월10일까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5000대 한정 판매한다. 항공마일리지 5만점을 공제하면 60만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부팅 시 아시아나 로고가 표시되고, 항공 콘셉트에 맞춘 테마도 적용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가입 요금제에 따라 마일리지 재적립과 함께 다양한 경품 제공 행사도 진행한다.

LG전자도 5월 ‘G7씽큐’를 출시하면서 넥

스과 제휴를 맺고 모바일게임 ‘카이지’를 기본 탑재하고 아이패드도 구매 혜택으로 제공했다. 여기에 인기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로고 새겨진 케이스 등을 포함한 ‘BTS 팩’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도도록 했다.

사용자 연령 등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넣어 틈새시장을 노린 스마트폰도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카카오톡플러스폰’ (사진)을 단독 출시했다. 리틀 라이언 등 카카오톡 캐릭터 8종을 배경·잠금화면, 아이콘, 케이스, 보호필름 등에 적용한 어린이용 휴대폰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J3’를 기반으로 실시간 위치조회, 유해 애플리케이션 차단



기능 등을 추가했다. 갤럭시J3는 어른을 위한 스마트폰으로도 변신했다. CJ헬로 헬로 모바일이 중장년층이 좋아할만한 고음질 대중가요 1100곡을 수록해 지난 18일 출시한 ‘청춘뮤지폰’이 그 주인공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볼보, 더 뉴 XC40 국내 출시

전 트림에 반자율주행 기술 기본 적용

국내 수입 SUV 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른 볼보가 SUV라인업을 완성하는 마지막 모델이자 컴팩트 SUV인 ‘더 뉴 볼보 XC40’을 26일 출시했다.

볼보 브랜드 설립 이후 90년 만에 처음 내놓은 컴팩트 SUV다. 올해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2018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될 만큼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볼보의 소형차 전용 모듈 플랫폼인 CMA(Compact Modular Architecture)를 최초로 적용했고 상위 모델인 XC90이나 XC60DP의 다양한 최신 기술을 대거 채택해 상품성을 높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동급의 프리미엄 SUV 세그먼트 최초로 전 트림에 볼보의 반자율 주행 기능인 파일럿 어시스트 시스템, 지능형 안전시스템인 인텔리 세이프 기술 등의 첨단 기능을 기본 적용했다는 점이다. 실내 공기 청정 시스템, 전동식 파

노라믹 선루프 등도 기본으로 장착된다. 상위 모델인 인스크립션 트림에는 13개의 하만&카톤 스피커와 360° 카메라 등 프리미엄 옵션도 추가된다.

국내에 출시되는 더 뉴 XC40에는 볼보의 최신 ‘드라이브-프’ 파워트레인이 적용된 2.0리터 4기통의 T4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다. 8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최대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30.6 kg·m을 발휘한다.

모멘텀, R-디자인, 인스크립션 등 세 가지 트림으로 판매되며, 판매 가격은 트림



26일 출시한 ‘더 뉴 볼보 XC40’은 올해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2018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된 컴팩트 SUV다.

사진제공 | 볼보자동차
 에 따라 4620만~5080만원(VAT포함)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교육·퍼즐

에듀윌

현직 주택관리사 인턴뷰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현직 주택관리사가 밝힌 ‘살면서 가장 잘한 일’

서울 오류동에서 378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기자 소장. 에듀윌 주택관리사 합격자 모임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해 관리소장으로 일하게 된 것이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한다.

아파트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설비 관련 업무를 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제 적성을 살려 어떤 공부에 도전해볼까 생각하다 주택관리사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때가 1차 시험 5개월 전이었어요. 회사를 다니느라 바빠서 시험 준비는 제에게는 절박함이 있었고 일 끝나고 새벽까지 에듀윌의 인터넷 강의를 보며 공부를 했죠.”

인생에 대한 절박함으로 7개월 만에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된 소 소장. 주택관리사도 취업난이라는 데 소



소장은 적극적인 동문회 활동 덕분인지 금방 취업을 했다. 남들보다 빠른 행보에 꽃길만 걸을 줄 알았지만 실무는 보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소 소장은 주택관리사로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실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합격 후 운이 좋게 관리소장으로 바로 취업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비 관련 업무를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빠르게 실무에 적응할 거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죠. 취업하신 분들 중에 실무와 실습이 부족해 결국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관리소장 자리를 그만둔 분들도 많아요”라고 말한 소 소장은 합격한 후배들에게 “현업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사무일이나 행정 업무를 꼭 해보라”고 조언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 | | | | | | | | |
|---|---|---|---|---|---|---|---|---|
| | | 2 | 8 | 6 | | 7 | | |
| 4 | | 9 | | | 2 | | | |
| | 1 | | 7 | | | | 9 | 5 |
| 6 | | | | 3 | | 9 | | 7 |
| | | | 6 | | 8 | | | |
| 2 | 1 | | 7 | | | | | 6 |
| 9 | 6 | | | | 7 | | 3 | |
| | | 3 | | | | 7 | | 4 |
| | 2 | | 4 | | 3 | 6 | | |

| | | | | | | | | |
|---|---|---|---|---|---|---|---|---|
| | 7 | | | 1 | | | | 8 |
| 5 | | | 6 | | 2 | | | 9 |
| | | 3 | | 5 | | 6 | | |
| | 5 | | | 6 | | | 4 | |
| 7 | | 8 | 3 | | 9 | 2 | | 6 |
| | 6 | | | 8 | | | 9 | |
| | | 5 | | 2 | | 9 | | |
| 2 | | | 4 | | 1 | | | 5 |
| | 4 | | | 9 | | | 2 | |

■ 스도쿠정답

| | | | | | | | | |
|---|---|---|---|---|---|---|---|---|
| 6 | 1 | 9 | 8 | 6 | 9 | 5 | 2 | 7 |
| 4 | 7 | 8 | 6 | 9 | 2 | 8 | 9 | 6 |
| 2 | 8 | 5 | 7 | 1 | 5 | 4 | 7 | 9 |
| 9 | 8 | 5 | 4 | 4 | 6 | 9 | 1 | 3 |
| 8 | 4 | 1 | 8 | 2 | 9 | 7 | 6 | 9 |
| 7 | 2 | 6 | 9 | 8 | 1 | 2 | 9 | 7 |
| 5 | 6 | 3 | 7 | 4 | 2 | 1 | 6 | 7 |
| 8 | 9 | 2 | 1 | 5 | 3 | 8 | 6 | 2 |
| 4 | 7 | 1 | 4 | 7 | 4 | 7 | 2 | 5 |
| 1 | 2 | 3 | 9 | 6 | 6 | 5 | 9 | 8 |
| 5 | 4 | 8 | 1 | 3 | 4 | 7 | 9 | 6 |
| 4 | 9 | 6 | 8 | 2 | 7 | 5 | 8 | 1 |
| 8 | 6 | 7 | 5 | 8 | 1 | 2 | 9 | 7 |
| 9 | 5 | 2 | 6 | 7 | 8 | 8 | 1 | 7 |
| 8 | 4 | 1 | 7 | 9 | 2 | 6 | 5 | 9 |
| 7 | 1 | 9 | 4 | 7 | 9 | 8 | 8 | 2 |
| 6 | 8 | 4 | 2 | 9 | 1 | 8 | 9 | 9 |
| 2 | 8 | 9 | 1 | 6 | 4 | 7 | 1 | 9 |